

제 8회 『본질적인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크리스토퍼 J.코인 · 피터 J.벳키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3명
2021년 7월 25일 경남 창원시
울타 스테디카페 석전동

9 계획 그리고 권력 문제

경제 통제는 다른 것들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인간 생활 한 부문만의 통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목적에 대한 수단의 통제이다. 그리고 수단을 유일하게 통제하는 누구든 또한 어느 목적에 이바지해야 하고, 어느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하며, 어느 것이 더 낮게 평가되어야 하는지도 - 요컨대,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애써야 하는지도 - 결정함이 틀림없다. - F. A. 하이에크(1944), 《노예의 길》:92.

경제 통제 = 돈의 통제 = 중앙정부의 통제

5만원 권 발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250원 정도이다.

5만원 권을 찍어낼수록 정부로서는 이득이 된다.

(세노리지 효과)

정부 계획자들이 필요한 경제 지식을 얻을 수 없는 점은, 사람들이 개입들에 자기들의 행동을 조정한다는 사실과 결합되어, -중략- 경제 활동을 계획하려는 노력이 일련의 의도되지 않는 결과들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식 문제 외에도, 경제 활동의 정부 계획에는 또 하나의 쟁점이 있다. 그것은 [경제 활동의 정부 계획은] 재량적 권력을 작은 집단의 정책 결정자들 수중에 중앙 집권화하는 경향이 있다.

개입의 정도와 상관없이, 정부에 의한 경제 계획은 희소한 자원들을 배분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시장 과정을 정치 과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수반한다. 즉, 계획은 정책 결정자들이 시장에서의 사적 행위자들의 목적과 욕망을 대신 그들의 것들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정부 계획은 경제 성과들이 정책 결정자들의 비전에 근거하여 어떤 것과 같아야 할지에 관한 모든 것에 우선하는 청사진을 개발하는 것을 수반한다. 시장들에서는, 분산된 의사 결정자들이 가격들(경제 계산)과 이윤 및 손실의 안내를 받아 자기들의 개별 계획들을 개발한다. 이 개별 계획들의 추구는 자생적이면서 어떤 단일의 마음에 의해서도 계획되지 않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질서에 따른다. 시장들에서는, 추구되는 어떤 단일의 목적 계층제도 없고 오히려 개개 선택자들에 의해 추구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기본소득이 그 예시이다.

반면에 시장(과정)은 가장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배분한다.